

사업계획초안 (1차 제출서류, 신규사업)

(3페이지 이내 작성)

- ☐ 단체명 : 홍길동종합사회복지관 ☐ 소재지 : 서울 사랑구 희망동
 - ☐ 대표명 : 홍길동
 - ☐ 단체의 주요사업 : 청소년 통합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조직화 등
 - ☐ 신청부문 :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 ☐ 사업명 : 다문화청소년과 가족, 시민옹호인의 관계맺기,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
(사업지역 : 서울 사랑구)
 - ☐ 사업연차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6월
 - ☐ 사업참여자 : 다문화가정 자녀 20명, 가족 40명, 시민옹호인 30명
-

☐ What?

사회환경과 가족제도 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취약계층이 생겨나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분야에는 정부의 제한적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아동 및 청소년 문제가 향후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가족과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문제해결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과 그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함께사는 시민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변화는 옹호감수성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다문화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관계개선 교육 등을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시민이 다문화청소년에게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및 가족, 시민이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업을 시행한다.

시민옹호인이 지역의 관련 복지기관, 거주시설, 지역의 다문화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진행하는 것은 다문화청소년과 그 가족 그리고 시민옹호인이 만나 관계맺기를 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 옹호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청소년 스스로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다문화청소년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지역주민,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과

시민옹호인을 선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내 고립되어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청소년 관계맺기를 위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과 다문화청소년,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마을축제 참가, 외부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다문화청소년 권리옹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관련기관 관계자, 사랑대학교 교수, 당사자, 보호자 등이 함께 모여 지역 내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① 시민옹호인 양성 및 활동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시민단체, 지역주민, 평생교육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시민옹호인을 선발하고 양성한다. 옹호활동을 통해 시민옹호인이 다문화청소년 가정에 방문하고, 1:2, 1:3 등 다자간 매칭을 통하여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활동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② 가족 및 지역사회와 다문화청소년의 관계 맺기

다문화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며, 자아실현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보는 직업탐색을 시행한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마을축제, 행사에 다문화청소년이 가족 및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모델 개발 및 연구사업

사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함께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사업의 성공요인, 실패요인 등을 분석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보고회 및 세미나, 정책제안 토론회 등을 개최해 파급효과를 높인다.

□ Why?

첫째, 다문화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축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들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주로 집 안에서, 복지시설 안에서만 생활해 왔다. 또한 외부활동의 대다수가 복지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서비스를 받으러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 지역 내 한정적인 공간에서만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안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존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그치고 있다. 복지기관,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다문화청소년과 교류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다문화청소년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다문화청소년 포용마을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청소년 포용마을과 관련된 제도와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지원생활(Supported living)과 자아실현의 개념을 활용하여 자립 욕구가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포용마을의 해외사례를 실제로 관찰하고, 세부적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 내용 등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해외탐방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산학 협력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확산이 가능하다. 사랑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다문화청소년 포용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기본 자료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다. 다문화청소년이 지역 내 시설들을 얼마나 이용하기 편리한지 조사하기 위하여 총 10개 지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다문화청소년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타 지역들과 연계해 사업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What Effect?

첫째, 다문화청소년과 가족, 시민 옹호인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구축된다. 다문화청소년과 가족, 시민 옹호인의 관계 형성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옹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옹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공공후견인으로써 역할을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및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통해 지속적인 옹호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활동지역이 확대된다. 주민자치센터 실무자들의 변화를 통하여 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역 내 마을축제, 주민활동들에 다문화청소년이 지역주민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접점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에서 다문화청소년이 함께 살고 있음을 아는 지역주민들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나는 접점들이 조금씩 늘어나다보면 다문화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살기좋은 우리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진정한 자아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관계 개선 교육,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이 진정한 꿈의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청소년과 가족이 직접 실시하는 지역사회 환경조사와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으로 발전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소요예산규모 : 100,000,000원

위와 같이 2019년 아산재단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아산사회복지재단 귀중